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안락행품 제14

상투속 구슬의 비유

<법화경>은 4안락행을 실천 다음 '계중명주(新中明珠)의 비유'를 통해 <법화경>이 모든 부처님 여래의 비밀장(秘藏)으로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경전이라는 점을 말한다.

'계중명주' 즉 '상투 속의 밝은 구슬'에 관한 비유는 아래와 같다.

"만주수리(文殊)여, 비유하면 강력한 전문성왕이 그 위력으로 여러 나라를 평정하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이 직접 토벌에 참가한다. 왕은 전공(戰功)을 세운 장병에게 각각 그 공로에 알맞게 여러 가지의 상을 내린다. 그러나 전문성왕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상투 속에 있는 훌륭한 보배만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보배구슬은 임금만이 상투 속에 비밀히 감추고(秘藏) 있는 것, 즉 왕위(王位)를 상징하므로 만일 그것을 주면 다른 왕들이 '왜 왕위를 나에게 줄까?' 하며 놀라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주수리여, 여래의 경우도 이와 같다. 여래는 선정(禪定)과 지혜의 힘으로 진리의 국토를 얻은 전세계(全世界)의 왕이다. 그러나 많은 마왕은 진리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진리의 왕은 부

므로 가장 최후에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하려 한다." 이 '계중명주의 비유'에 등장하는 악마란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속의 번뇌를 표상한 것으로서 이 악마를 극복하는 것을 '항마(降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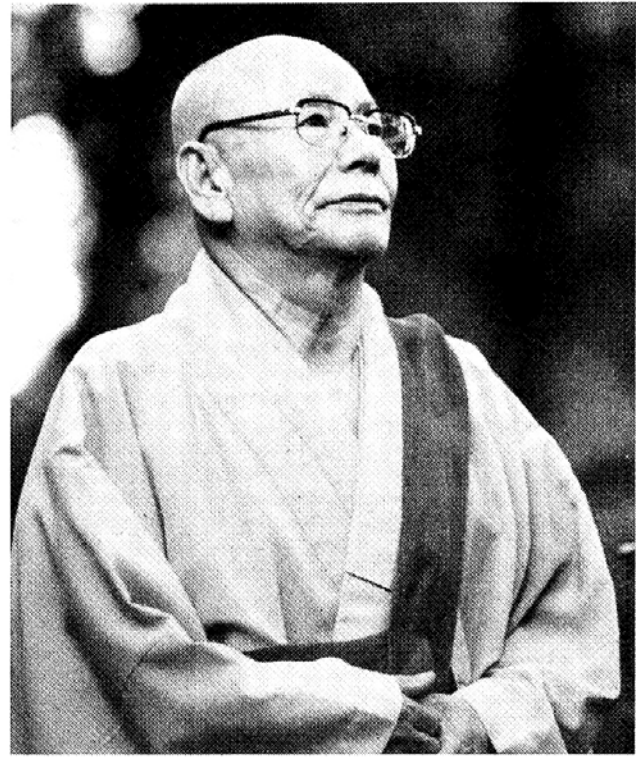
석존의 전기(傳記)에 의하면 석존께서 깨달음을 완성하려고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 갖가지의 악마가 나타나 헐뜯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며 석존의 깨달음을 방해하였지만 석존께서는 그 습격을 참고 견디며 결국에는 악마를 굴복시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의 석존께서 취하신 좌선(坐禪)의 자세는 가부좌(伽趺坐)인데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무릎 위에 두었다. 이를 항마좌(降魔坐)라 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두번째 손가락으로 대지(大地)를 가리키는 모습을 하였더니 악마가 물러갔다고 하여 이 두 손의 모양을 항마족지인(降魔觸地印)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악마가 밖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속에는 부처와 법부가 함께 살고 있으니 이를 선가(禪家)에서는 '불법동거(佛凡同居)'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와

숲 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쐬는 일은 상상만 해도 마음 한켠에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느낌이다. 우거진 숲이 방출하는 피톤치드의 살균 효과와 녹색으로 인한 정신적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 산림욕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숲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무언가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광 해변도로를 달려 도착한 용주사에서 소리없는 미소로 기자를 맞이한 수도 스님을 만나본 후의 느낌이 꼭 그랬다. 수도 스님이 내뿜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울창한 숲속을 오래도록 거닐때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개운함 속에서 오래도록 쉬고 돌아왔다.

요사채 앞에 길게 깔린 평상에 나와 기자를 맞이한 스님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지독한 감기가 오래 머물다 갔다고 한다. "집이 현직이니 여기 고치고 나면 저기 탈이 나고 또 저기 고쳐 놓으면 어느새 다른 곳이 고장이 나고 그 래. 옷을 오래 입고 있으니 현웃이 다 되어.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멋진 옷이 있어야 갈아 입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하하하" 웬만큼 괴롭혔는지 저절로 물러났다는 감기를 마치 스님을 방문했다 간 손님 얘기하듯 돌려 주신다. 몸이 오래되었으니 병이 들고 고통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스님이지만 그래도 신도들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 지구 아프다고 하면 부처님께 누가 된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오늘도 초하루 법회가 있었는데 내 몸이 온통 아파서 버리고 너무 말을 많이 했다. 한달에 두 번 열리는 법회니 하나라도 더 일러주고 싶어서 그랬지. 오늘도 남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법문했어. 남의 마음이란 탐,진,치 삼독에 물든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란 뭐겠어요? 탐,진,치 삼독에 의해 일어났다 가리웠었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닌 본래 고요한 근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번뇌망상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부처님만 나무라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치 길을 걸을때, 자신이 한눈을 팔다가 길에 솟은 돌부리를 발로 차고서는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한 자신은 반성하지 않고 돌부리만 탓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은 일월처럼 언제나 차별 없이 중생을 비추고 있건만 중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법문을 통해 전하며 전법도생의 길을 걷고있는 수도 스님.

“마음속 부처님께 바



가까이

수도스

수도스님은?

1925년 양산 상북면에서 태어난 도스님은 어릴적 유달리 병치레가 많았다. 가족들이 먹는 음식은 아예 입도 못넣고 절에 가면 명을 이룰 수 다는 말에 부친이 13살에 통도사로 가를 시켰다. 집이 통도사에서 가까워 스님은 어린 마음에 부친을 만나 위해 집을 찾아가면 부친이 회초리

‘업경대’·‘반야심경’

구짚으며 절로 다시 돌려보냈다. 저를 살리고 싶은 부친의 정성때문인지 절에 와서 스님은 팔순을 바라 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1938년 살의 나이로 통도사에 입산하며 불을 맺은 후 1962년 이후부터 계속 주사에 주석하고 있다.

화초 키우기를 좋아하는 수도스님 이 가꾸놓은 도량은 소박하게 꽃을

다고, 짐을 보러 간 사람은 금명 아침을 가져와도 절에는 출입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야심경>을 3개 월만에 못 외우면 절에 못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보살들이 많은 곳이었으니 내가 각해도 신도를 고생 좀 시켰죠. 허허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절에 내려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지도 덕분에 용주사 신도들은 <반야심경>과 <천경>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다. 또한 의 뜻을 새기며 부처님 법 제대로 공부하는 불자들이 많다. 멀리 부산에서 온 까지도 찾아오는 신도들이 많은 이유 여기에 있다. 또한 스님은 경을 외우

번뇌망상은 간절함 없는 탓

때문에 그 빛을 가리고서는 부처님만 탓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미혹의 깊은 짐에서 어서 깨어나서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할텐데...” 스님은 이어 번뇌망상의 원인이 간절함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간절함 마음으로 기도하면 번뇌망상이 끼여들 틈이 없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본마음으로 기도할 뿐 집안의 우환에 마음을 뺏겨서 는 안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 마는데 더 많으니 본래의 탐진치 마음에 계합이 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허송세월 하는 불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님의 신도교육은 철저하다. 처음 이곳 바닷가에 용주사를 창건하면서는 고생도 무척 많았다.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마을 사람들의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마음이었다. 기복적인 마을사람들의 종교관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일 자체

가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1962년, 이곳에 처음 왔는데 그해에는 전국적으로 보리홍년이 들었어. 보리를 베어놓고 타작도 하기 전에 계속 비가 와서 보리에 모두 썩어 나 버렸어. 그러니 먹을 수가 없게 되어 모든 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많이 굶었어. 지금은 굶는다는 게 실감 안 나겠지만 그때는 다들 고생하던 시절이니깐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퍼겠다는 서원은 놓치지 않고 마을 포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스님,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고사 좀 지내주시시오' 하고 찾아와요. 바닷가의 특성상 고사도 지내주 고 점도 봐주는 무속신앙이 널리 성행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얘기했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왜 징을 치고 굿을 하면서 정신을 빼앗 기느냐고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절에 나오게 하면서 두가지 다 짐을 받았어요. 절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짐을 보러가면 절에 못 오게 하겠

비밀장...가장 얻기 힘든 경전의미 악마는 수행 방해 마음속 번뇌 표상

하인 수행자의 여러 장군을 마군(魔軍)과 싸우게 한다. 이 싸움에서 전과(戰果)를 올린 수행자에게는 다시 많은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기쁘게 한다. 또 여래는 해탈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소질의 힘이라는 진리의 재물(財物)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포상을 받은 그들은 번뇌를 멸하여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기뻐하지만 그래도 여래는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않는다. 만주수리여, 전문 왕이 자기의 상투 속에 감추어 두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밝은 구슬을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래도 또한 마음 속의 악마인 탐,진,치 삼독, 여러색을 세 가지의 독(毒)을 멸한 위대한 수행자에게도 일찍이 설하지 않았던 <법화경>을 지금 여기서 설하려 한다.

만주수리여, 왜냐하면 이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훌륭하게 여래의 지혜에 도달하게 하지만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도리어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래는 지금 이 경을 여기서 설한다. 만주수리여, <법화경>은 여래의 가장 높은 설법이며 수많은 설법 가운데서 가장 깊은 비밀의 가르침이

법부는 모두 인제(人智)가 아니며 부처는 불성(佛性)을, 법부는 인간성(人間性)을 비유한 말이다. 따라서 불성과 인간성은 원래 이질적이거나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동일성의 것이니 이것이 대승불교의 사상이다. 윤리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선악과 정사(正邪)의 현상을 상대적으로 보고 선과 악, 정(正)과 사(邪)를 서로 싸우게 하여 선과 악과 사에 이기도록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선과 악, 정과 사를 서로 적대적(敵對)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거(同居)하는 것으로 여겨 나란히 있게 하여 선과 악, 정과 사를 하나의 몸(一體)으로 지향한다. 이리하여 <신론(信論)>에서는 '진리 법은 곧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 속에 진여심(眞如心)과 염심(染心)이 있다고 하며 의상대사(義相大師)의 <법성계(法性義)>에서도 '법성원유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 정사를 한몸으로 하여 그 위치를 향상시키려면 양자를 싸움에 의하지 않고 정과 선이 각각 사와 악을 조어(調御), 즉 컨트롤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것이 불교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2002년 제 16회 우리는 선우 여름 캠프 ... 걸어봐, 찾아봐, 느껴봐, 또다른 세상!

세계적인 불교유적지 경주, 단순히 사진배경으로만 알고 있는 당신에게 사진 배경 아닌, 인생배경으로의 경주여행을 소개합니다. 여행의 배움과 캠프의 우정을 함께 드립니다.

경주가 다시 보인다!

너와 함께 라면 ... '우리는선우' 와 함께 라면 ...

2002년 여름 새로운 배움과 우정을 갈망하는 당신!

불타는 젊음 초대합니다.

■ 날짜별 프로그램 :

- 2일 - 입재식 및 전체 불교레크레이션용 한나되기
3일 - 무리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주 문화 체험하기
4일 - 무리별 프로그램 후, 바닷가에 모여 체험 공유하기
5일 - 전체답사 및 외향식을 통한 캠프 마무리

■ 기 간 : 2002년 8월 2일 - 8월 5일 (3박 4일)

■ 장 소 : 경상북도 경주

■ 예비소집 : 2002년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선우 법당

■ 참가대상 : 초(5, 6학년) · 중 · 고등학교생

■ 동 참 금 : 8만 5천원

* 참가비는 무통장 입금하시고, 사무국으로 확인 전액주세요.

우리는행(구)안빛은행 170-019297-13-304 (예금주: 우리는선우)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갈아입을 옷, 개인상비약

■ 접수기간 : 2002년 6월 17일 - 7월 26일

* 자세한 사항은 우리는 선우 사무국 tel : (02)2278-8672-3 fax : (02)2278-8675

홈페이지: http://www.sunwoo.or.kr E-mail: sunwoo@sunwoo.or.kr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두통), (이비), (저림), (심한 현기증), 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 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고시마현 구니와케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소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린백, 매실, 머위 등)

- 현대대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꿰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자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철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철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목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2년 7월 31일(수) 오후 8시부터 2002년 8월 6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1,16,710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양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 선 합장